

# -을까/ㄹ까 하다

This grammar pattern is used to show an intention or plan of the speaker. It also shows that the speaker's intention or plan is still under consideration and can change.

- 일본어를 배울까 해요. (I am thinking of learning Japanese.)
- 내일은 청바지를 입을까 해요. (I am thinking of wearing blue jeans tomorrow.)

※ '-을까/ㄹ까 하다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비빔밥을 먹다 → 비빔밥을 먹을까 해요.

1. 구두를 신다. → \_\_\_\_\_
2. 한식집에 가다. → \_\_\_\_\_
3. 꽃을 선물하다. → \_\_\_\_\_
4. CD를 듣다. → \_\_\_\_\_
5. 아메리카노를 마시다. → \_\_\_\_\_
6. 김밥을 만들다. → \_\_\_\_\_

※ '-을까/ㄹ까 하다'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가 : 퇴근하고 뭐 할 거예요?  
나 : 그냥 술 한 잔 마실까 하는데요.

1. 가 :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?  
나 : \_\_\_\_\_.
2. 가 : 용돈 받았지요? 그걸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?  
나 : \_\_\_\_\_.
3. 가 : 특별한 방학 계획이 있어요?  
나 : 그냥 \_\_\_\_\_.
4. 가 : 저는 주말에 \_\_\_\_\_ 선생님은요?  
나 :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거예요.
5. 가 : 저는 지금 \_\_\_\_\_ 같이 갈래요?  
나 : 미안하지만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.
6. 가 : \_\_\_\_\_ 어느 학원이 좋아요?  
나 : 저도 영어 잘해요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



# 답

※ '-을까/르까 하다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구두를 신을까 해요.
2. 한식집에 갈까 해요.
3. 꽃을 선물할까 해요.
4. CD를 들을까 해요.
5.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해요.
6. 김밥을 만들까 해요.

※ '-을까/르까 하다'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1. 볶음밥을 먹을까 해요. / 그냥 굽을까 해요. / ...
2. 쇼핑이나 할까 해요. / 핸드폰을 바꿀까 해요. / ...
3. 집에 있을까 해요. / ...
4. 부산에 갈까 하는데 / ...
5. 영화 보러 갈까 하는데 / ...
6. 영어를 배울까 하는데 / ...